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7주 -

- 조용한 기도 (Silent Prayer) 시편 99:1-3 다함께
- 찬 송 (Opening Hymn) 35장(새 298장) 다함께
-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새 23번(스크린 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 (Prayer) 다함께

우리의 앓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육체적인 욕심과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계시록 3:14-22 인도자
- 찬양 (Anthem) 시온성가대
- 말씀증언 (Sermon) 이송원 목사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7)

- 봉 헌 (offering) 376장(새 450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 (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 (Hymn) 180장(새 188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송원 목사

-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 장석순할머니께서 지난 수요일(7월 3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추모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식 후에는 쿠모 뷔페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 교우동정
 - 김영희권사님 : 출타
 - 담임목사 휴가 : 금주 한 주간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 목사님, 허춘희권사님, 죄은진권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 갈라디아서 5:16, 25-26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동합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삶의 열매, 즉 인격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영에 속하여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악행을 끊임없이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과의 사랑을 가지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서 더욱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닌 성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갑시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요한계시록 3:14-22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14-19절)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2.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20절) 나는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는 것입니다(고후 13:5).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적인 앎이나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가장 위급한 영적 상태에 이르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걸으며 행하고 있는 어떤 경건의 행위가 신앙의 시금석이 되었다면, 그것을 속히 치우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 존재는 육체뿐이요 그로부터 산출되는 죄 덩어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면 자신은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육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상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행복해한다면,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난하며 벌거벗고 눈이 먼 것이라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걸터잡고 문 빗장을 풀고 속히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